

# 김현미 장관, “설 연휴 내내 모두가 안전운행” 강조

## 23일 기흥휴게소 교통안전캠페인서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귀성길 당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(목) 오후 2시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(부산방면)에서 설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.

-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청장,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,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도로공사 부사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,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.

□ 캠페인 시작 전 ‘교통안전 결의대회’에서 김 장관은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고,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보운전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며,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기원했다.

- 김 장관은 “최근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많이 줄이긴 했으나,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함”을 강조하면서,

- “안전을 우선시하는 제도 개선, 시설 및 시스템 선진화,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, 교통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ZERO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”을 요청했다.

- 특히 “설연휴 기간 교통사고 ZERO를 위하여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, 졸음운전·음주운전을 하지 않고, 도로 살얼음 구간 등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안전운전을 해 줄 것”을 당부하면서,

- “정부는 설 연휴기간 드론, 경찰 헬기, 암행 순찰차 등으로 위험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,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닥터헬기와 119 구급대를 비상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”임을 알렸다.

- 특히 “올해는 연휴기간 내내 전국 11곳의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포토존을 운영, 시민들이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함에 따라 많은 참여를 통해 안전 의식도 높이고, 설 선물도 받아가실 것”을 당부했다.
- 김 장관은 이어진 캠페인에서 껌, 생수 등 졸음운전 방지용 물품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, 도로 살얼음 주의 운전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며 안전운행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.

2020. 1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